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삽화 연구

조희정 조선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 I. 서론
- II.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삽화의 실제
- III.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삽화의 기능
- IV. 삽화에 드러나는 근대 초기 국어교육의 모습
- V. 결론

I. 서론

본 논문에서는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속 삽화¹의 실상을 살펴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에서 삽화가 담당한 기능을 분석하고 삽화를 통해 드러나는 근대 초기 국어교육의 모습을 추출하고자 한다.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가 중세의 문해 교재들과 구분되는 특징 중 하나는 삽화가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현대 국어 교과서에서도 삽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삽화는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가 지닌 근대성의 징표 중 하나로 파악할 만하다.

물론 중세의 책에서도 삽화가 수록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이황(1501-1570)의 <성학십도(聖學十圖)>와 같이 성리학의 원리를 구조화하려는 목적으로 집필된 경우, 민중들에게 윤리를 계도할 목적으로 편찬된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정약용(1762-1836)의 <도설(圖說)>처럼 과학적 원리의 이해를 쉽게 풀이하려는 책에 도표 혹은 삽화가 수록되었다. 그러나 중세의 문해 교재에서 초학자(初學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를 수록한 사례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 속 삽화를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의 특징으로 전제할 수 있다.

1 삽화는 “서적·신문·잡지 따위에서, 내용을 보충하거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넣는 그림”(표준국어대사전, 2015년 12월 7일 검색)이라는 정의를 따른다.

홍선표는 근대계몽기 교과서 삽화 연구의 선편을 잡았다. 홍선표는 “교과서 삽화는 기계화된 인쇄술로 대량 생산하여 시각적으로 육체화(肉體化)된 정보를 균일하게 보급”함으로써 “복제된 개화와 계몽의 이미지로 널리 작용”하였으며 “과학적 물체관과 근대적 시각법의 내면화에도 적지 않게 기여”(2009: 69)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근대계몽기 초등 교과서 속 삽화를 제재별 유형으로 분류하고 한국 미술사의 관점에서 양식의 계보를 살피는(홍선표, 2002) 등 근대계몽기 교과서 삽화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홍선표의 연구가 다양한 교과서의 근대계몽기 교과서 삽화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를 연구하며 부분적으로 삽화에 대해 언급한 선행 연구도 있다. 구자황(2013: 523-530)은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중 최초로 삽화를 수록한 <신정심상소학>(1896)의 삽화가 일본의 <심상소학독본>(1887)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밝혔으며, 조희정(2014: 193-196)은 삽화를 통해 드러나는 근대계몽기 언어문화교육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두 연구 모두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에서 삽화가 차지했던 비중을 주목하도록 시선을 이끌지만, 국어 교과서 내 삽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이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에서 삽화가 존재하는 양상을 살피고, 국어 교과서 본문과 삽화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삽화가 담당했던 기능을 분석하여² 삽화가 국어 교과서 내 핵심 요소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삽화는 당대 사회를 반영하는 풍속도로 기능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어 교과서 속 삽화가 품고 있는 근대 초기 국어교육의 모습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상의 분석은 삽화를 매개로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의 특징을 이해하는 작업인 동시에 근대계몽기 국어교육에 접근하는 작업이 되리라 기대한다.

2 최근 교과서 내 삽화의 기능에 주목하는 논의들(김병수, 2014: 197-202.; 박인옥, 2010; 박준용, 2014 등)은 대부분 글과 삽화의 관계에 주목하여 삽화의 의미 구성 기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

Ⅱ.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삽화의 실제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에 삽화가 수록된 양상을 살펴보자. 본 논문에서는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속 구상화(具象畵)뿐만 아니라 지도, 천문도 등의 그림도 삽화에 포함시켰다. 총 16종의 국어 교과서 중 삽화가 수록된 교과서는 10종이다. 삽화가 수록된 교과서에서 삽화의 개수는 페이지를 단위로 삼아 동일 페이지에 수록된 삽화를 하나로 헤아렸으나 교과서별 삽화 구성 방식이 다르기에 몇 가지 예외를 두었다. 두 페이지에 이어 연속된 그림은 하나로 헤아렸으며, <국어독본>(1907) 1권 1과-7과, <최신초등소학>(1908) 1권, <신찬초등소학>(1909) 1권, <초등소학>(보성관, 연도 미상) 1권, <몽학필독>(연도 미상) 1권과 같이 자모별 혹은 단어별로 해당 삽화를 모두 제공한 경우³는 동일 페이지에 수록되었더라도 복수의 삽화로 헤아렸다.

표 1.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삽화 수록 현황

발행 연도	국어 교과서명	삽화 유무	삽화 수	단원 수
1895	국민소학독본	×	0	41
1895	소학독본	×	0	5
1896	신정심상소학 1	○	20	31
	신정심상소학 2		20	32
	신정심상소학 3		26	34
1906	초등소학 1 (대한국민교육회)	○	62	단원 구분 없음
	초등소학 2 (대한국민교육회)		20	21
	초등소학 3 (대한국민교육회)		25	30

3 이 경우는 <표 1>에서 *로 표시하였다.

	초등소학 4 (대한국민교육회)		21	29
	초등소학 5 (대한국민교육회)		20	29
	초등소학 6 (대한국민교육회)		13	28
	초등소학 7 (대한국민교육회)		10	29
	초등소학 8 (대한국민교육회)		12	25
1906	고등소학독본 1	○	20	45
	고등소학독본 2		21	45
1907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 1	○	55*	45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 2		12	25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 3		13	23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 4		8	22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 5		9	23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 6		10	26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 7		9	23
1907	유년필독 1	○	9	33
	유년필독 2		4	33
	유년필독 3		14	33
	유년필독 4		8	33

1908	초등여학독본	×	0	51
1908	노동야학독본 1	○	1	50
1908	초목필지 상	×	0	63
	초목필지 하		0	66
1908	녀조독본 상	×	0	64
	녀조독본 하		0	56
1908	부유독습 상	×	0	단원 구분 없음
	부유독습 하		0	
1908	최신초등소학 1	○	97*	단원 구분 없음
	최신초등소학 2		25	
	최신초등소학 3		21	
	최신초등소학 4		25	
1909	신찬초등소학 1	○	53*	41
	신찬초등소학 2		24	38
	신찬초등소학 3		26	40
	신찬초등소학 4		23	38
	신찬초등소학 5		24	40
	신찬초등소학 6		14	38
미상	초등소학 1 (보서관)	○	101*	단원 구분 없음
미상	몽학필독 1	○	90*	단원 구분 없음

주지하다시피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중 삽화가 수록된 최초의 국어 교과서는 <신정심상소학>(1896)이다. 교과서 제작 단계에서 일본인 저자의 참여가 확인되고 일본의 <심상소학독본>(1887)을 참고하였다고 알려진 바처럼 <신정심상소학>(1896)의 삽화도 일본 <심상

소학독본>(1887)의 삽화와 유사한 것이 많다.(구자황, 2013: 516-533) <신정심상소학>을 시초로 이후에 발행된 국어 교과서 중 절반 이상은 단원 본문에 삽화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삽화가 제시된 국어 교과서는 근대의 학교교육이 계몽의 대상으로 삼은 ‘국민’을 위한 대중 교육 교재가 다수이다.⁴ 즉 특정 범주의 학습자가 아닌, 근대계몽기 학제 속 소학교(혹은 보통학교)에 입학하는 초학자들을 위한 교재들이다. 1906년 고등학교령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해 휘문의숙 편집부에서 편찬한 <고등소학독본>(1906)만이 예외이다.

교과서별로 수록된 삽화의 개수는 차이를 보인다. <신정심상소학>(1896)과 같이 전체 단원의 2/3에 삽화가 수록된 경우, <최신초등소학>(1908)과 같이 대부분의 단원에 삽화가 수록된 경우, <유년필독>(1907)처럼 전체 단원의 1/4-1/3 정도에 삽화가 수록된 경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학년별로 교과서가 제작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1권에 삽화 수가 많으며 고학년용 교과서일수록 삽화가 줄어들었다.

저학년용 교과서의 삽화는 자모, 문장, 짧은 글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이나 학습자의 일상생활 모습을 담고 있다. 반면 고학년용 교과서에서는 지리, 과학 등 근대 지식을 설명하는 단원이 많아 삽화 역시 인체의 내부를 보여주는 해부도⁵, 지구의 공전을 실험하는 삽화⁶, 지구의 공전을 시각화한 천문도⁷, 도시의 지리⁸ 혹은 세계의 지리를 제시하는 지도⁹ 등으로 전문화되고 있다.

근대계몽기의 초기 교과서인 <국민소학독본>(1895)과 <소학독본>(1895)을 제외하면, <초목필지>(1908)와 여성 학습자를 염두에

4 홍선표(2002: 265)에 따르면 <초등소학>(1906)과 <초등소학>(보성관, 연도 미상), 천도교 소학생용 교재로 추정되는 <몽학필독>(연도 미상)의 삽화는 1905~6년 무렵 이들 기관에서 편집 일을 맡아 보았던 이도영이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5 <초등소학>(1906) 8권 제3 人體.

6 <신정심상소학>(1896) 3권 제24과 地球의回轉이라.

7 <초등소학>(1906) 8권 제22 太陽과太陰 제23 前課의續.

8 <초등소학>(1906) 4권 제25 漢陽, <최신초등소학>(1908) 4권 제13 漢陽 등 다수.

9 <신찬초등소학>(1909) 5권 제30과 東西洋諸國二.



그림 1. 노동야학독본(1908)

둔 <초등여학독본>(1908), <녀중독본>(1908), <부유독습>(1908)에 삽화가 수록되지 않았다.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1908)은 독특한 사례이다. 교과서의 본문에서 삽화를 찾아볼 수 없지만, 교과서 첫머리에 책의 저자인 유길준과 이 책의 대상 독자인 노동자가 만나는 장면(<그림 1>)이 삽화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삽화는 <노동야학독본>의 존재 자체를 맥락화하는 기능을 한다. 즉 선각자 유길준이 노동자에게 교육하는 내용이 곧 <노동야학독본> 전체라는 성격을 부여하며 <노동야학독본>의 계몽성을 부

각시키고 있다.

국어 교과서에서 삽화에 대한 인식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에서는 <그림 2>와 같은 삽화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¹⁰ 얇은뱅이책상 위에 책이 쌓여 있고 펼쳐진 책의 양면에 삽화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 눈길이 간다. 중세의 책에서 삽화 아래에 텍스트가 병행된 체제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림 2> 속 책과 같은 방식으로 삽화가 포함된 책들은 곧 근대 지식을 전하는 근대의 서적임을 짐작케 한다.



그림 2.

삽화에 대한 인식은 <그림 3>을 통해서도 신찬초등소학(1909)1-37 파악할 수 있다. <초등소학>(1906) 3권에는 상급학년으로 무사히 진

10 <신찬초등소학>(1909) 1권과 <초등소학>(보성관, 연도 미상) 1권에 <그림 2>와 유사한 삽화가 제시되어 있다.

학한, 심상학교 1학년과 2학년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상으로 그림을 전해주는 단원 내용과 삽화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삽화 속 아버지의 방을 살펴보자.

‘書留子讀’이라고 쓰인 액자가 보인다. 아마 그 액자의 글귀는 ‘집이 아무리 가난해도 자손이 읽을 책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貧不賣書 留子讀’일 것이다. 책을 소장해야 하는 의미를 강조한 글귀 외에도 꽃이 그려진 화첩과 서가에 쌓인 책들은 조선 후기 문인들이 책과 그림을 수집하던 장서열(藏書熱)(홍선표 외, 2006: 13)을 떠올리게 한다. 아버지 뒤로 뚜껑이 열린 상자 속에 두루마



그림 3.

초등소학(1906)3-14 父親의상급

리 그림들이 커꺼이 쌓여 있는 모습으로 보아 아버지의 수집 목록에는 그림도 포함된 듯하다.

아버지가 칭찬과 격려의 의미로 자신이 수집한 그림을 아들에게 전하자 한 아들은 상으로 받은 그림을 펼쳐보며 호기심을 표출하고 있고, 다른 아들은 그림을 막 건네받고 있다. 이 시기에 그림을 수집할 만큼 심미안을 지닌 사람들이 등장했고, 그림은 수집의 대상이 될 만큼 흥미로운 물상이 되었으며, 나아가 상찬의 의미를 지닐 만큼 가치를 부여받았음을 보여주는 삽화이다.

홍선표(2002: 283-291)에 의하면,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속 삽화는 우리의 중세부터 이어져 온 전통 화법을 따른 그림과 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구 근대식 화법을 차용하거나 번안한 그림이 뒤섞여 있다. 범교과적 성격을 지닌 국어 교과서에서는 근대 미술에 대한 소개도 찾아볼 수 있다.

<신정심상소학>(1896)에서는 그림[繪]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라 하였다. 이 단원에 포함된 삽화 <그림 4>는 사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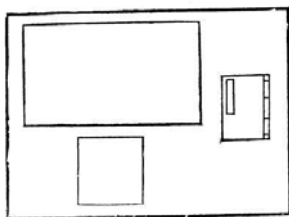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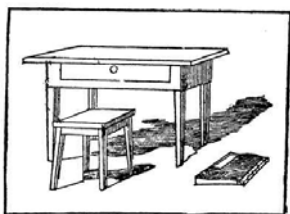


그림 4.
신정심상소학(1896)
3-19 繪와圖라

의 입체화와 평면도를 비교하는바, 원근법이 도입되어 책상, 의자, 책의 부피와 거리감이 드러나고 그림자까지 표현된 입체화는 서구에서 도입된 근대 미술의 기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에서 교과서 속 삽화에 대한 기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단원이 있다. 단원명으로 ‘그림이야기’를 내세운 <초등소학>(1906) 2권의 14과, 15과 16과와 <신찬초등소학> (1909) 2권의 15과, 16과인데,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2-3개의 단원들로 연속시킨 구성이 독특하다.

<초등소학>(1906) 2권 14과 ‘그림이야기1’에서는 <그림 5>처럼 정길이와 정희의 고모가 아이들에게 그림을 전해준 후, 그림을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단원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 姑母 ㄴ, 그림을, 펴노코, 차례로, 구경 식히며, 이야이 톨, 하오. 그림 도, 도커니와, 이야이 도, 참, 자미 잇소.”로 단원이 마무리되는데, 후속 단원인 15과 ‘그림이야기二’와 16과 ‘그림이야기三’은 고모가 조카들에게 들려주는 그림 이야기인 셈이다.

고모가 보여주는 그림에 정희와 정길이, 두 아동이 흥미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해 보자. 그림을 감상하는 시각 체험이 주는 신선함, 재미 등이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성질임을 보여준다. ‘그림을 보는 행위의 즐거움’이 강조된 삽화 속에서 고모가 조카에게 보여주는 그림 중에는 전통 방식의 그림뿐 아니라 근대적 그림이 포함되어 있으리라 가정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고모가 조카에게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이다. 그림에서 이야기를 추출할 수 있으며 이야기의 장면



그림 5. 초등소학(1906)
2-14 그림이야기1

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그림과 이야기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치와 믿음이 드러나 있다. 이어지는 단원에서는 삽화와 삽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써 이야기와 삽화의 실제 관련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에서 고모가 조카들에게 그림을 보여주어 흥미를 유발하고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관점은 국어 교과서 내에서 삽화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

하고 교과서 단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교과서 단원 본문과 삽화가 맺고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국어 교과서에서 삽화가 담당하는 기능을 분석해 보자.

Ⅲ.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삽화의 기능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에서 삽화가 담당하는 기능은 홍선표에 의해 검토되었다. 홍선표(2002: 265-282)는 당대 미술의 범주 내에서 ‘그림’으로 담당하는 기능에 주목하여 교과서 삽화를 박물도, 풍속도, 설화도·역사도 등으로 분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어 교과서의 단원 본문과 삽화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삽화의 기능을 ‘단원 본문의 근대적 시각화’와 ‘내재된 가치의 육화(肉化)’¹¹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1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는 아니지만 일제강점기 지리 교과서인 <초등지리서>(1932)의 삽화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와 표현 방식을 분석한 연구(신수경, 2009: 253-263)를 찾아볼 수 있다.

1. 단원 본문의 근대적 시각화

근대계몽기는 근대적 미술 개념이 형성되던 시기이다. 1895년 갑오개혁 이후 ‘도화’가 근대적 교과서의 하나로 다루어지고,(홍선표, 2009: 35) 근대적 문물이 박람회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근대적 시각 매체의 대표적인 사진과 함께 중세와는 다른 방식의 조형 예술로 회화, 조각, 공예, 건축 등이 도입되었다.(홍선표, 2009: 53)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속 삽화는 학습자에게 ‘보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요소로 기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속 삽화에서는 학습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도록 요구하는지 분석해야 한다.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의 삽화가 지닌 주요 특징 중 우선적으로 주목할 지점은 동일 삽화가 서로 다른 교과서에 반복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반복 수록된 삽화는 근대 지식과 관련된 이미지¹²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일상생활 모습¹³, 중세의 인물화¹⁴ 등으로 다양하다. 이것은 근대 인쇄 매체라는 근대 교과서의 특징이 반영된 현상으로 교과서를 통해 복제된 이미지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시각경험을 제공하는 이미지의 대중화”(홍선표, 2009: 57)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속 삽화는 단원 본문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장치로 기능하였다. 이때 시각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재현하는가?”는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속 삽화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12 대표 사례로 <국어독본>(1907) 7권 제10과 地球上の人種과 <신찬초등소학>(1909) 5권 제37과 世界の人種에 세계의 다양한 인종을 보여주는 동일한 삽화가 수록된 경우와 <유년필독>(1907) 3권 제13과 九港口三開市場과 <신찬초등소학>(1909) 5권 제4과 九港과三市에 인천, 원산, 부산항의 동일 지도가 수록된 경우를 들 수 있다.

13 <초등소학>(1906) 4권 제15 雪戰과 <최신초등소학>(1908) 4권 제7 冬の雪戰에 눈싸움을 하는 동일한 삽화가 수록되었다.

14 <유년필독>(1907) 1권 제15과 乙支文德 三과 <신찬초등소학>(1909) 5권 제16과 乙支文德에 을지문덕의 동일한 초상화가 수록되었다.

<그림 6>은 ‘그림을 그리다’라는 문장과 함께 제시되었는데, 우리의 중세 사회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아니라 서구 근대, 특히 화가가 야외로 나가 이젤을 세워두고 풍경을 그리는 장면이 제시되었다.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에서 ‘그림을 그리다’라는 문장이 내포하고 지시하는 바가 서구에서도 “19세기의 인상주의 화가들에 의해 보편화된 야외 사생 장면”(홍선표, 2002: 283)으로 시각화되었으니 의미심장하다. 이는 국어 교과서 속에서 우리의 중세에도 존재했던 현상과 그 현상을 지시하는 듯 보이는 단어 혹은 개념조차도 서구에서 도입된 개념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다음은 국어 교과서 속 삽화가 근대 문물을 시각화하는 사례¹⁵를 보여준다. <그림 7>은 기차 바깥에서 달리는 기차를 보는 장면이며, <그림 8>은 기차를 탄 채 기차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는 장면이다. <그림 7>이 포함된 단원은 “기차가온다.”고 하여 부산을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는 기차를 바라보고 있는, 삽화 속에서 등을 보이고 선 두 청년의 시선으로 본문이 서술되었다. 반면, <그림 8>이 포함된 단원에서는 처음 기차를 탄 수동이라는 인물, 즉 삽화



그림 6.
최신초등소학(1908)1권



그림 7.
국어독본(1907)1-38



그림 8.
국어독본(1907)3-17 汽車窓

15 교과서 삽화를 포함한 근대계몽기 인쇄미술에서 근대 문물을 시각화한 사례를 ‘기계 문물’과 ‘하이칼라’ 이미지로 나누어 분석한 홍선표(2005: 262-275) 참고.

속에서 기차 창으로 풍경을 내다보고 있는 청년의 입장에서 기차를 타며 경험한 신기한 체험을 서술하고 있다.

기차는 서구에서 들어온 근대 문명의 대표적 사물이다. 기차의 실물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과서 속 삽화는 신문물의 실체를 시각적으로 확인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때 낯선 서구 문명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이를 청년으로 설정한 후, 청년의 시선을 부각시키는 본문과 그에 부합하는 삽화로 단원을 구성하였음에 주목해야 한다.

삽화는 단원 본문에 제시된 내용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며 단원 본문을 장면화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본문은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도입하여 단원을 구성한 경우가 많다.(조희정, 2012: 106-110) 시간의 흐름은 서사 전략의 기본 전제인데, 시간의 흐름을 전제하는 이야기를 하나의 장면으로 압축하여 이야기의 이해를 돕고 있는 삽화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9>가 포함된 단원의 본문을 보자.



그림 9. 신찬초등소학(1909)

3-10 無識 혼害

山の虎가. 사람을害하거늘 獵夫가陷阱을. 파고. 그것해. 크게. 써굴오디此下에虎阱이有하니 行人은止步하라. 하얏더니 無識 혼. 사람이. 그. 글을. 아지 못. 하고其傍으로. 지나다가虎阱에. 빠져. 발을傷하고. 사람. 살리라고. 크게. 부르지지거늘

隣人이救出하고. 그. 글을. 가라쳐. 그. 뜻을告하디其人이歎息曰내가. 글을. 알앗드면. 엇지此境에. 이르리오. 하고學堂에. 가工夫하얏나이다(헌재 (1909), <신찬초등소학> 3권 第十課 無識 혼害)

단원의 제목이 무식하여 생기는 해로움이라는 의미의 ‘무식한 해’이다. 단원의 도입에서 호랑이가 사람을 해친다고 언급한 후, 호랑이를 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 앞의 경계 문구를 읽지 못했던 사람이 함정에 빠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설명함으로써 글자를 몰라서 입게 된 신해

적 상해는 호랑이로부터 생겨나는 해로움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라는 의미를 제시하였다.

삽화에서는 이웃 사람이 함정에 빠졌던 인물을 구해낸 직후를 장면화하였다. 왼쪽의 이웃 사람이 담장의 경계 문구를 가리키고 있으니 문구의 내용을 읽어 설명하고 있는 듯하며, 발목을 잡은 채 설명을 듣고 있는 오른쪽 인물을 보건대, 함정에 빠지면서 발목을 빼는 신체적 상해를 입은 듯하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모두 단발에 학생모를 쓰고 학생복을 입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즉 단원에서 언급한 ‘글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은 학생 신분이지만 아직 글자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으로 시각화되었고 이웃 사람은 학생 신분이되 문해 능력을 갖추지 못한 동료를 지도할 수 있는 인물로 그려졌다. 학교 밖 상황이지만 마치 교실 내 교사와 학생 사이처럼 그려졌다.

함정에 빠졌던 이가 학당에 가 공부하는 것으로 단원이 마무리되고 있으니 이 단원이 염두에 둔 독자는 1차적으로 학교에 다닐만한 여유를 갖춘, 혹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일 것이다. 단원의 본문뿐만 아니라 삽화를 함께 고려한다면 이 단원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게을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이 실질적 위험과 상해임을 제시하며 학습에 집중하도록 권장하는 의도를 드러낸다. 이처럼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의 삽화는 국어 교과서 단원 본문의 내용을 시각 자료로 재현하며 단원 본문에 제시된 내용 이상의 추가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내재된 가치의 육화(肉化)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의 삽화가 제공하는 근대적 시각 경험에는 단원 본문에 언급된 내용을 시각적으로 재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원 본문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구체적 형상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한 경우도 포함된다. 문자 텍스트로 표면화되지 않은 내용이 구체적 이미지

텍스트로 육체성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따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생략되거나 문면 아래에 전제된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삽화가 국어 교과서 속 의미 자질로 부각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삽화 속 장면은 《후한서(後漢書)》 <열녀전(列女傳)>의 ‘맹모단기지교(孟母斷機之敎)’ 장면이다. 맹자가 학업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짜고 있던 베를 끊으며 학문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훈계하였다는 내용 중 맹자의 어머니가 베를 끊기 직전의 모습을 삽화로 담아냈다.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책, 나이 어린 맹자의 모습과 맹자를 바라보며 오른손에 칼을 쥐고 베를 끊으려 하는 어머니의 결연한 모습이 좌우 대칭 구조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삽화를 포함한 단원의 본문에 ‘맹모단기지교(孟母斷機之敎)’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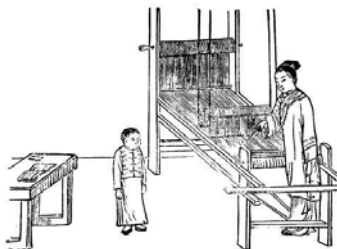


그림 10. 신찬초등소학(1909)
5-9 孟子

孔子가沒호신지百年後에孟子가生호시니此는亞聖이니孟子의名은 軻호字는子與라魯國南隣되느鄒國에서生호야賢母의敎訓을. 밋아 學識이. 크게進호섯느이다孟子의서孔子의道通을傳호시고諸國에 周遊호시나道를行치. 못호고歸호야弟子로. 더브러問答호야一書를著호시니後世에서其書를孟子라. 일커러論語와. 갓치行호니孔子와 孟子의敎를儒敎라. 호느이다(현재(1909), <신찬초등소학> 5권, 第九課 孟子)

본문에서는 유학의 도통(道通)으로 맹자를 설정한 후, 동아시아 전통의 인물 소개 방식에 따라 맹자의 명(名)과 자(字), 출생지 등을 알리고 있다. 여러 나라를 두루 돌아다녔으나 유학의 도를 전하는 데 실패하고 추나라로 귀국하여 후진 양성에 힘쓰며 《맹자》를 집필하였다는 맹자의 생애가 간결하게 요약되었다.

본문에서 삽화와 관련된 부분을 굳이 찾자면 “賢母의敎訓을. 밋아” 일 것이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현모의 가르침을

‘맹모단기지도(孟母斷機之教)’ 삽화로 제시하여 본문의 한 부분을 구체화하고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삽화가 제시됨으로써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서사가 단원의 내용에 추가되어 단원 전체를 완성하고 있다.



그림 11.

고등소학독본(1906) 2-9

孟母의敎子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중 <고등소학독본>(1906)에도 ‘맹모단기지도’의 삽화가 제시되었다. <그림 11>은 <고등소학독본>(1906) 2권 9과의 단원 본문에 제시된 “孟母 | 刀를引호야其機를自斷호니孟子 | 懼호샤跪問호신덕”를 구체적 장면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맹자 어머니의 입을 빌려 배움을 베짜기에 비유하며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맹모단기지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권학하는 이야기의 대표로 다루어진다. 앞서 살핀 <그림 10>은 단원의 본문에서 ‘맹모단기지도’를 언급하지 않고 오직 삽화만을 통해 문면에서는 생략된 맹자 어머니의 따끔한 가르침을 삽입하는 효과를 노렸다. 이때 삽화는 단원 본문을 보충하고 대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나아가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속 삽화는 단원 본문으로 표명되지 않은 이데올로기를 구체적 형상으로 구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글을 통해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림을 통해 시각적으로 형상화되며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육체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독자에게 글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는 특히 국어 교과서가 내포하고 있는 성역할¹⁶의 측면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림 12>는 “글을아라라”라는 문장과 결합된 삽화이며, <그림 13>은 “父母의敎訓을聽흠” 단원에 수록된 삽화이다. 삽화는 글을 가르

16 현대 국어 교과서 삽화에서 드러나는 성역할을 살핀 연구로는 조희숙(1997: 163-185) 참조.



그림 12.
최신초등소학(1908) 1권



그림 13.
신찬초등소학(1909) 3-16
父母의敎訓을聽흠

칠 수 있고 책을 통해 교훈을 전할 수 있는 이는 아버지이며, 글과 책을 통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아들은 아들로 대표되는 남성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시각화하고 있다. <초등소학>(보성관, 연도 미상) 1권과 <신찬초등소학>(1909) 1권에서도 확인되는 유사 삽화들은 ‘아버지-글, 책, 교훈, 학습, 가르침-아들’로 이어지는 계열 속에서 아버지의 성역할을 고정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그렇다면 삽화 속에서 어머니 혹은 여성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 국어 교과서에서 남녀를 나란히 제시한 삽화를 살펴보면, 남녀의 성역할은 판에 박힌 듯 고정된 채 반복된다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표 2.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남녀 대비 삽화

 그림 14. 초등소학(보성관) 1권 녀편네는 솟을 솟고	 그림 15. 초등소학(보성관) 1권 늙은이는 책을 보오
--	--



그림 16.
초등소학(보성관) 1권
령길이는 글자를 쓰고



그림 17.
초등소학(보성관) 1권
룡희는 수를 낚소



그림 18.
최신초등소학(1908) 1권
아버지



그림 19.
최신초등소학(1908) 1권
어머니



그림 20.
신찬초등소학(1909)
1권 5과
아버지



그림 21.
신찬초등소학(1909)
1권 5과
어머니

<초등소학>(보성관, 연도 미상)은 같은 페이지에 두 삽화를 나란히 배치하고 관련 문장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삽화와 문장의 대비적 효과가 커서 ‘젊은 여성 - 꽃’, ‘늙은 남성 - 책’, ‘남성 아동 - 습자’, ‘여성 아동 - 자수’의 계열이 기계적으로 파악될 정도이다. <최신초등소학>(1908)과 <신찬초등소학>(1909)은 단어 ‘아버지’, ‘어머니’를 설명하기 위해 삽화를 넣었다. ‘아버지’와 결합된 삽화는 책을 들고 아들을 교육하는 장면으로 제시된 반면, 어머니는 딸과 마주 앉아 등잔불 밑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딸의 손을 잡고 자애롭게 바라보는 장면으로 형상화되었다.

<표 2>의 삽화들은 모두 학년별로 마련된 교과서의 1권에 수록되어 있다. 한글 자모를 익혀 한국어의 기본 단어를 익히는 어휘 학습과 짧은 문장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삽화를 제시하였다. 한글에 입문하는 학습자들의 문해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보조 자료로 삽화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삽화들은 초보 학습자들의 단어 이해에 도움을 주는 명시적 기능 이외에도 남녀 성역할을 학습자의 의식 속에 형성시키고 고정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물론 국어 교과서 속 여성들이 ‘어머니’의 형상으로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국어 교과서에는 근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도 등장한다.¹⁷ 흥미롭게도 근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은 학생복을 입은 모습, 독서 장면, 학교생활, 교실 장면 등 다양한 삽화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 교육이나 학교의 맥락을 담은 삽화에서 근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은 찾기 어렵다. 즉 근대 학교 여학생들은 교과서 내 본문에서 존재가 확인되지만 교육이나 학교의 맥락을 담은 삽화 속에 배치되지는 않았다.

이는 당시 근대 학교의 학생 절대 다수가 남학생이었다는 점과 관련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원 본문에 등장한 여학생의 존재가 근대 학교 관련 삽화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은 교육이나 학문과 관

17 <초등소학>(1906) 2권 2과 아참 二.

런된 담론 내에서 여성이 배제된 당대의 사회 현상을 단적으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근대 지식과 교섭하는 여학생 담론을 차단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어 교과서 속 삽화에서 여학생은 어떤 모습으로 제시되었을까? <그림 22>가 포함된 단원에서는 토요일에 학교에 다니는 정희가 동무인 난희를 초대하여 정희가 주인이 되고 난희가 손님이 된 상황에서 주인과 손님이 갖추어야 할 예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본문 중 다음의 내용이 삽화로 그려졌다.



그림 22. 초등소학(1906)
2-8 정희와난희

主人 이, 썩 과 실과 로, 손님 을, 대접 하니.

손님 은, 공손히 맞으면서, 매우, 고맙소, 말 하노이다.

主人 이, 쏘 차 를 싸러서 량편 에 노앗소. (대한민국교육회장판(1906), <초등소학> 2권 第八 정희와난희)

삽화의 오른쪽 소녀가 떡과 실과를 내어놓고 있으니 주인 역할을 하는 정희일 것이다. 주인과 손님 역할을 하는 두 아이의 모습을 서술한 후 “이 두아해 가, 나히 논, 어리나, 인사 논, 매우 숙성호이다.”라고 단원을 마무리하였다. 여학생이 등장하는 단원이지만 학교 혹은 지식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여성에게 요구되던 생활 예의범절을 다루며 관련 장면을 삽화로 제시하였다.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의 이와 같은 실상을 고려할 때, 여인의 독서를 보여주는 다음 삽화(<그림 23>, <그림 24>)는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내에서 상당히 예외적 사례이다. 두 삽화가 포함된 단원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인의 방바닥에 흩어진 곡식을 본 쥐가 눈먼 어미 쥐를 모셔와 어미 쥐가 곡식을 먹도록 돕는 모습을 보고 여인이 ‘효’에 대해 크게 깨달았다는 내용이다.

두 단원 본문의 차이점은 <신정심상소학>(1896)의 등장인물인 순희와 달리 <초등소학>(1906) 속 등장인물인 정순은 성품과 행실이 선량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인물로 전체됨으로써 개과천선의 변화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점 정도이다.



그림 23. 신정심상소학(1896)
3-9 孝鼠의이이기라



그림 24. 초등소학(1906)
8-6 孝鼠

본문에서 여인의 독서를 언급하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順姬란女子ㅣ。冊床압히서。혼조冊을。볼시。(학부 편집국(1896), <신정심상소학> 3권 第九課 孝鼠의이이기라)

一夜는貞順이書室에坐하야書를讀호시 (중략) 貞順은이에書聲을止하고書案을倚하야(대한국민교육회장판(1906), <초등소학> 8권 第六 孝鼠)

<그림 23>의 순희는 머리에 쪽을 진 반면, <그림 24>의 정순이는 머리를 땀고 있으니 <그림 24>의 여인이 좀 더 나이가 어릴 것이다. 책상 위에 등잔불이 갖추어져 있으며 책을 읽을 여유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순희와 정순이 모두 부유한 집안의 여인들이다. 특히 순희의 방에는 읽고 있는 책 이외에도 책상 위와 뒤편 문갑에 책이 갖추졌으니 순희는 평상시에도 꾸준히 책을 읽는 여인으로 파악할 만하다. 19세기 사대부 가문의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대하 가문 소설들이나 20세기 구활자본 책들이 순희의 독서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여인의 독서가 삽화로 제시된 단원에서조차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효’ 혹은 ‘부모님 봉양’ 문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단원 본문뿐만 아니라 삽화의 초점이 여인의 독서 장면보다 그림 한 구석의 쥐들에게도 향하고 있다. 이는 독서에 열중하던 순희의 모습(<신정심상소학>(1896))이 책에서 눈을 떼고 방 안의 쥐들에게로 시선을 옮긴 정희의 모습(<초등소학>(1906))으로 변화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독서가 아닌 실생활 속 에피소드를 통해 교훈을 얻는 여인의 독서 장면은 결국 남성들의 독서 장면에서 어김없이 강조되는 것, 즉 책은 교훈을 전달하는 매개이며, 독서가 곧 학습이라는 관점과는 사뭇 다른 관점을 내포하게 된다. 여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독서보다는 실생활 속에서 배워야 하며, 어머니에게서 딸로 전수되는 생활 경험을 통해 습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속 삽화는 단원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 사물과 장면 등으로 시각적으로 재현하거나 단원 본문의 내용에서 사라진 채 문면 아래에 감춰진 내용을 이미지 텍스트로 육화함으로써 학습자에게 근대적 시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가 지닌 삽화의 특징은 이후 근대적 형태의 국어 교과서 속 삽화의 일반 속성으로 자리 잡는다.

IV. 삽화에 드러나는 근대 초기 국어교육의 모습

교과서 속 삽화가 근대계몽기의 대표적 인쇄미술이라고 한다면, 삽화에는 삽화가 그려질 당시의 사회 모습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속 삽화에는 근대 초기 국어교육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근대 초기 국어교육을 읽기 교육과 쓰기 교육으로 나누어 관련 삽화들을 살펴보자.

다음은 독서의 목표와 방법을 다룬 단원에 수록된 삽화이다. 두 삽화는 모두 앞서 언급한 ‘그림이야기’ 단원에 수록되었으니 수록된 삽화

에 대한 이야기가 단원의 본문으로 제시되었다.



그림 25. 초등소학(1906)
2-15 그림이야기 二



그림 26. 신찬초등소학(1909)
2-15 그림이야기 一

두 삽화의 구도, 삽화에 그려진 제재, 삽화 속 인물의 행동 등이 동일하다. 근대식 책상 앞 의자에 정자세로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남성이 삽화의 중심부에 배치되었다. <초등소학>(1906)과 <신찬초등소학>(1909)이 교재로 활용되던 시기의 <보통학교령 시행규칙>(1906)에서는 보통학교 입학 학령을 만 8세-만 12세로 규정하였고, 만 14세까지 허용하였던바, 삽화 속 한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깎은 남성은 보통학교에 다니는 10대 중후반 학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책상 위에는 중세 방식의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¹⁸으로 만든 책 2권과 습자를 위한 필기구와 잉크가 놓여 있다. 잉크와 함께 놓인 필기구들은 붓, 벼루, 먹, 연적과 같은 중세식 필기구가 아니라 <그림 27>, <그림 28>과 같은 근대의 필기구인 철필이거나 연필, 펜 등일 것이다.

남학생이 읽고 있는 책은 삽화가 포함된 책이니 근대에 출판된 책으로 보인다. 책상 전면에 걸려 있는 세계 전도는 남학생이 얻고자 지향

18 제책: 바늘구멍인 침안(針眼)을 뚫고 실이나 끈으로 책등 가까운 쪽을 맨 책의 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다섯 침안을 뚫은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학 중앙 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5년 10월 30일 검색.

하는 지식의 성격을 드러내는 단서를 제공한다. 근대계몽기 학교 교육 내에서 세계 지리는 근대를 대표하는 지식으로 다루어졌던바, 경도와 위도에 따라 작성된 세계 지도를 방에 걸어둔 남학생이 독서를 통해 습득하고자 하는 바는 근대에 주목받은 신지식일 것이다.

단원의 본문은 왼쪽에 배치된 앵무새와 관련된다. 두 단원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초등소학>(1906) 부분만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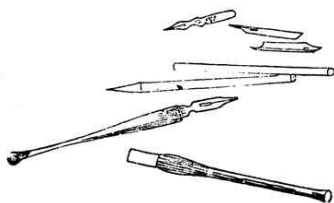


그림 27. 초등소학(1906) 1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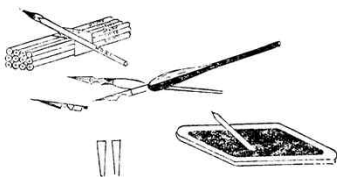


그림 28.

신찬초등소학(1909) 2-14 筆

이 그림은 한 아해가, 글 을, 읽는 것이다.

이 아해는, 교의에, 안져, 책 을, 정신되려, 읽는다.

이 아해 왼편에, 한 앵무새가, 잇는디, 그 글 읽는 소래 톨, 입내 낸다.

녀의 눈, 앵무새 톨, 구경하여라.

앵무새는, 뽕히 사람 의 말소래는, 입내 내나, 그뜻 은, 아지 못하느니라.

我의 사랑 하는 족하들아, 너의 눈, 글 을, 읽을새에, 저 앵무새 와, 갓치, 말지어다. (대한국민교육회장판(1906), <초등소학> 2권 第十五 그림이악이二)

첫 문장에서 그림 속 장면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아이가 “정신되려” 책을 읽고 있는데, 앵무새가 아이의 글 읽는 소리를 흉내내어 따라 읽는다 하였으니 아이는 책을 낭독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를 읽는 아이들은 앵무새와 달리 책을 읽을 때 소리로만 읽지 말고 글의 뜻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며 읽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삽화 속에 앵무새를 그려 넣었다. 낭독식 독서 방법이 지닌 문제점을 ‘앵무새’로 형상화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서의 방법을 사물로 변환하여 육체

성을 부여하고 잘못된 독서 방법을 시각화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학생들이 경계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기 위해 상급 학교의 국어 교과서에서 원숭이를 등장시킨 단원도 있다. 우연히 교실에 들어온 원숭이가 책을 펼치거나 웃는 등 학생들의 행동을 흉내내었는데, 학생들이 원숭이의 털을 뽑자 원숭이도 학생의 머리털을 뽑으며 상해를 입혔다. 학생을 구조한 교사가 학생들이 원숭이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학생들을 꾸짖으며 학교에서도 어린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 학문에 정진할 것을 권장하는 단원이다.



그림 29.

고등소학독본(1906) 2-10 榜樣

이에게 글자를 가르쳐주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그 옆의 학생은 그러한 행동을 말리는 듯한 모습이다.

이러한 삽화는 본문의 “汝에서小ᄃᆡ學生이汝의模樣이或,謹慎치못ᄃᆡᄇ을見ᄃᆡᄇ즉其所爲를必,效ᄃᆡᄇ이此猴와無異ᄃᆡᄇᄃ”라는 구절과 결합하여 마치 글을 모르는 사람을 원숭이에 비유한 듯한 인상을 주며, 나아가 어린 학생들 앞에서 “塾中이雍肅ᄃᆡᄇᄃᄃ學問을增進”한다면 어린 학생들도 학문에 정진하는 선배의 모습을 따를 것이라는 뉘앙스를 덧붙인다.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에서 또 다른 독서의 장면을 찾아볼 수 있

<그림 29>에서는 교실에서 원숭이가 책상 위 책을 펼치자 한 학생이 책 속의 글자를 가리키는 장면이 제시되었다. 의자에 앉은 모든 학생들도 앞에 책을 펼쳐 두었으니 원숭이가 학생들을 흉내내며 책을 펼치자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웃음 짓는 부분이다. 단원 본문에서는 학생이 원숭이에게 글을 가르쳤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삽화에서는 원숭이 앞에 서있는 학생이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마치 원숭



그림 30.

국어독본(1907)1-19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독자의 넉넉한 살림 형편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그림 31>은 살림 형편이 넉넉지 않은 아동의 독서 장면을 보여준다. 그림 속 아동은 12세의 복동이다. 독서를 좋아하지만 “家勢가 苟且하여”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매일 나무를 팔아 생계를 돕고 있기에 독서할 겨를이 없는 아이이다. 생업을 도와야 하는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끌고 다니는 길 위에서도 글에서 눈을 떼지 않는 장면은 복동보다 나은 처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독자들, 특히 <국어독본>(1907) 2권을 학습하는 교과서 학습자들에게 독서와 학문에 힘쓸 것을 권장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림 31.

국어독본(1907) 2-1 童子 —

복동과 같은 처지의 아이가 길 위에서 읽었던 글은 어떤 형태의 글이었을까? <그림 32>는 근대계몽기에 존재했던 독서물의 형태를 보여준다. 책상 앞에 근대계몽기의 교과서로 보이는 두 권의 책이 놓여 있다. 한 권의 표지에 “大韓○○”이라는 제목이 보이고, 다른 한 권은 삽화가 포함된 페이지가 펼쳐져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다다더더 도도두두”가 페이지별로 적힌 철자

19 <국어독본>(1907) 6권 4과 燈火에서는 등화의 변천을 삽화로 제시하였다.

(綴字) 카드이다. 한글 초학자들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철자 카드는 한글의 자음을 모음 ‘ㅏ’와 결합시켜 자음의 순서에 따라 카드의 낱장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철자 카드와 유사한 내용은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1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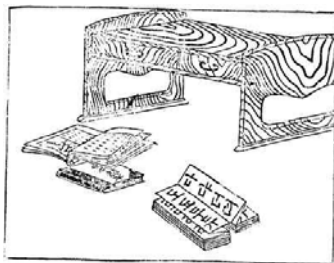


그림 32. 초등소학(1906)1권

<그림 31>이 포함된 단원, 말을 끌고 가며 길 위에서 글을 읽는 복동이 이야기는 다음 단원으로 내용이 이어진다. 후속 단원의 제목은 ‘童子 二’로 복동이 이웃집 순명의 이야기를 다룬다. 순명은 복동기와 동갑이며 아버지가 동네 제1의 부자이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순명은 복동이의 마음에 감동하여 저녁마다 복동에게 독서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자신의 책을 나눠주어 동네 사람들이 두 아동을 칭찬한다는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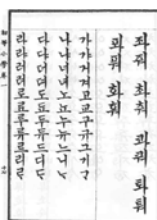


그림 33.
초등소학
(1906) 1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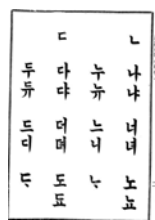


그림 34.
신찬초등소학
(1909) 1권

순명이 등장하는 ‘童子 二’ 단원에는 삽화가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순명이 복동에게 독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복동과 순명이 함께 책을 읽는 모습은 <초등소학>(1906) 3권의 “밋글읽기” 단원의 본문과 삽화(<그림 35>)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본문 중 삽화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길과,갑길이,갓치,와셔,도강흙,예비롤,생각ㅎ느이다.

20 <초등소학>(1906) 1권은 단원의 구분 없이 단어와 삽화를 제시한 체제의 중간 부분에, <국어독본>(1907) 1권에서는 단원이 마무리된 교과서 말미에, <신찬초등소학>(1909)은 교과서 시작 부분에 한글 자모에 이어 철자를 제시한 후 단원이 시작되고 있으며 <몽학필독>(연도 미상)에서는 한글 자음 순으로 관련 단어를 제시한 후 철자를 포함시켰다.



그림 35. 초등소학(1906)
3-29 밋글읽기

정길이,갑길더러,말하되,우리가,今夜에,
밋글을,함기,읽자하얏소.

그래서,갑길은,저녁밥을,먹고,정길에게
로,冊을,가지고,왔소.

지금,이,두,兒孩는燈火를밝히고,冊床우
에,冊을,펴,노코,읽는다. (대한국민교
육회장판(1906), <초등소학> 3권 第二
十九, 밋글읽기)

본문에 등장하는 ‘밋글’이란 ‘배우고 있는 책에서 이미 배운 부분의 글’²¹이다. 학교 시험을 앞두고 사촌지간인 정길이와 갑길이가 서로 마주 앉아 학교에서 배운 책의 해당 부분을 낭독하는 학습 장면이 삽화로 제시되었다.

삽화는 부유한 집안의 학습자가 누리는 독서의 상황을 알려준다. 벽에 걸린 산수화와 “敎讀”, “對人言”이라는 글귀가 쓰인 벽장의 문 등은 중세 문인의 사랑방을 떠올리게 한다. 주전자를 올려놓은 화로와 등잔 불은 아동이 독서에 열중할 수 있게끔 방을 따뜻하고 밝게 만들어주는 소품들이다. 서적 2-3권과 필기구, 베틀가 놓여 있는 낮은 책상 등이 이 방의 용도가 오롯이 글 읽기와 글쓰기를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두 아들은 저마다 각자의 책을 펼쳐놓고 책에 집중하고 있다.

물론 근대계몽기의 모든 아동이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지는 않았다. <최신초등소학>(1908) 3권의 ‘學徒의이야기’ 단원에는 조반과 석반을 굶고 학교에 다니면서도 우등한 성적을 거두었던 갑동이와 을동이가 방학을 맞이하여 “燈油가,업서서昏夜에,工夫할수업스니,어두은,漆夜에 난,뒤글이나,講할수,밋게업”는 처지에 놓이자 “둘이,合財하야,燈油를,準備해놋코,兩人이,한房에,모혀서” “뒤글을,工夫”하고²² “開學하면,工夫할

21 밋글. 『표준국어사전』, 2015년 6월 17일 검색.

22 뒤글이란 “배운 글을 익히기 위하여 뒤에 다시 읽는 글”이다. 『표준국어사전』, 2015년 10월 30일 검색.

冊을, 미리, 줌, 工夫”²³하여 월반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그림 35>와 같은 상황은 근대계몽기의 아동 중 부유한 집안에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소수의 아동이 처한 상황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림 36. 신찬초등소학(1909)

3-11 向學하는兒孩

당시의 가난한 학습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그림 36>은 당대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 주목하게 된다. 삽화 속 건물 오른쪽 바깥에 앉아 있는 아이는 장경이다. 8살 장경이는 집안 살림이 넉넉지 못하여 학교에 가지 못하고 남의 집 돼지를 먹이며 지냈다. 동네 학교에서 “글소리”를 듣고 부러워하다 학교 월사금을 낼 수 없으니 사환이 되어 글을 배울 수 있는

지 교사에게 물어 허락을 받았다. 그날부터 사환하는 여가에 공부하여 학업이 크게 진전을 보였다는 것이 단원의 내용이다.

삽화는 장경이가 학교의 교실 바깥에서 수업을 듣는 모습을 보여준다. 장경이는 아마 본인을 사로잡았던, 학생들이 책을 낭독하는 “글소리”를 들었을 것이며 교사의 강의 내용을 들었을 것이다. 책상 위에 책을 편 채 교단으로 시선을 던진 학생들과 교실 밖에서 청강하는 장경이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독서의 방식이 낭독인 상황에서는 책이 없어도 귀로 ‘읽는’ 학습도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삽화이다.

그렇다면 교실 안에서 글을 읽는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림 37>과 <그림 38>은 <신정심상소학>(1896)과 <신찬초등소학>(1909)의 “書冊을讀하는法이라”는 단원 속 삽화이다. 두 교과서의 단원 본문이 대동소이하며 <그림 37>의 그림자가 <그림 38>에서 사라졌다는 점

23 <최신초등소학>(1908) 3권 22과 學徒의이약이.

을 제외하면 삽화도 큰 변화 없이 반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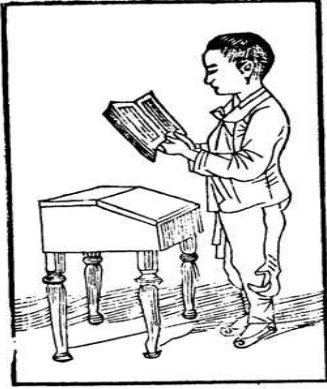


그림 37.

신정심상소학(1896)3-18

書冊을讀호는法이라



그림 38.

신찬초등소학(1909)6-11

書冊을讀호는法

단발의 소년이 책상 앞에 꼳꼳한 자세로 서서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이다. 고무신을 신고 정자세로 서서 책을 들여다보고 있기에 교실 내 여러 학우들 앞에서 책을 읽는 장면으로 보인다. 단원의 본문에서는 책을 읽는 속도, 발음, 의미 파악의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니 단원 속 삽화는 단원 본문에 제시된 전략과 방법을 적용하여 책을 낭독하는 이가 갖추어야 하는 모범적 자세를 보여주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여러 학생들이 모여 있는 교실에서 독서에 집중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단원과 삽화도 찾아볼 수 있다.

오늘아침에,時間을마췌야,學校에,上學하야—齊히讀書할새
 敎師가,學徒의,專心하는지,안이하는지試驗코즈,하야혼자,말노,더鴻雁의一隊
 가,나라온다하니,
 여러兒孩들이,다토아空中을仰視하야鴻雁을尋覓하되
 一兒난,天然이坐하야,冊만보고,조금도動치,안커날,敎師가,稱贊하야,갈오대,此
 兒난,참,工夫에專心한다,하니라(정인호(1908), <최신초등소학> 4권 1과 工夫

의專心)

위 본문 중 삽화로 그려진 장면은 ‘기러기 한 무리가 날아온다.’는



그림 39 최신초등소학(1908)4-1

工夫의專心

교사의 혼잣말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개를 들어 기러기를 찾고 있는 한편에서 독서에 집중하는 한 아이를 교사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책상 위에 펼쳐진 여러 권의 책이 조금 전까지 학생들은 책을 읽고 있던 상황임을 보여주며 창가로 쫓아가 이마에 손을 얹고 적극적으로 하늘을 관찰하는 아동, 흥미를 드러내며 창가로 다가가는 아동,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창가로 고개를 쳐들고 있는 아동 등 교사의 혼잣말에 반응하는 학습자의 모습이 동적으로 표현되어 독서에 집중하는

아동의 정적인 모습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교사의 왼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지만 시선은 책을 읽는 아동으로 향하고 있어 학습자들을 의도적으로 시험에 빠뜨린 후 학습자의 태도를 관찰하려는 교사의 의도가 삽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림 39>는 방해 요소가 발생하더라도 혹은 주위 환경이 산만하여 독서에 집중할 수 없는 여건이 되더라도 독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마땅히 독서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담아내는 삽화라 할 수 있다.

독서에 대한 집중력은 <그림 40>이 포함된 단원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이 단원에 등장하는 순길이는 평소 수업 시간에도 장난이 심하며 공부에 힘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교사를 속이는 아동이다. 교사가 정신을 집중하여 읽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라는 학습 활동²⁴을 지

24 “汝等은,汝等の冊을,精神드려,불지어다,자난흥을,因히야,일노바를,아지못히느냐,지금은,

시하였는데, 순길이가 평소에 미워하던 태창이를 결눈질로 관찰하다 태창이가 다른 곳을 바라보는 순간 교사에게 고자질을 하자, 교사는 순길이 역시 책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꾸짖는다. 이 단원은 “諸子들아, 讀書 할 때에, 目을, 冊에, 移치말지어다, 一身으로, 兩事를, 하지못하느니라,”라며 독서에 집중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발언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림 40. 초등소학(1906)

5-21 泰昌과順吉

삽화는 순길이가 교사의 자리로 나아가 태창의 행동을 고자질하고 있는 장면이다. 의자에 앉아 책상 위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다수의 학습자들과 달리 칠판 앞에 서서 태창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순길이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다. 교사는 순길이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데, 이후 ‘태창이가 너의 책에 있느냐?’며 순길이를 엄하게 꾸짖는다.

이상에서 살핀 바처럼 책을 낭독하는 이의 모범적 자세, 주위 상황에 휩싸이는 아동과 대비되며 산만한 환경 속에서도 독서에 열중하는 태도, 교실 전체가 독서에 집중하는 모습과 그에 반하는 사례 등은 모두 독서에 임하는 학습자의 태도를 형성하려는 의도를 담은 삽화들이다. “書冊을讀하느法이라” 단원의 본문에서 독서의 방법과 전략을 알려주되 삽화를 통해 독서의 태도를 형상화하고, “工夫의專心”과 “泰昌과順吉” 단원의 본문에서 짧은 이야기와 삽화를 연동시켜 독서에 임하는 자세를 시각화하는 양상은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속 독서 관련 삽화들에 부과되었던 과제가 올바른 독서의 태도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으리라 짐작하게 한다.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내에서 독서의 장면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汝等이, 어린즉, 工夫할 쟈니, 萬一, 작난하야, 他處를 見하느 兒가 有하거든, 我에게, 來告하라.”
대한국민교육회장관(1906), <초등소학> 5권 21과 泰昌과順吉.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습자 혹은 작문의 장면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이는 아마도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가 독본의 성격을 지녔기에 독서 교육의 관점을 좀 더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작문 교육은 작문 교과서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과 관련될 것이다. 또한 필기구와 종이를 필요로 하는 습자와 작문의 교육은 독서 교육보다도 집안 형편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야 했기에 독서 교육에 비해 덜 대중화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림 41.
초등소학(보성관) 1권

<그림 41>의 정길이가 글자를 쓰는 습자 장면을 살펴보자. 벼루에 먹을 간 후, 먹을 가지런히 챙겨두고 무릎을 꿇고 앉아 붓으로 ‘가’를 정자체로 적은 후, 이어 ‘가’를 쓰려는 듯 ‘ㄱ’의 획을 긋고 있는 모습이다. 철자 카드에 제시된 한글 자모를 익힌 후, 습자를 통해 반복 학습하는 초학자의 자세가 드러난다.

반면 “붓을드러”라는 구절과 결합하여 제시된 <그림 42> 속 인물은 정길이에 비해 나이도 많아 보이고, 글씨를 쓰는 모습도 꽤 능숙해 보인다. 종이와 붓이 수직을 이루는 정자세로 줄글을 이어 쓰고 있는 모습인바, 글씨 쓰기를 익히는 습자의 단계라기보다는 본인의 사상과 감정을 글 속에 담아내는 작문에 가까워 보인다.



그림 42.
최신초등소학(1908) 1권

앞서 독서의 장면 속 책상 위에 비치되었던 필기구들은 철필, 연필, 펜과 같은 근대식 필기구였지만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에 서 근대식 필기구를 사용하는 삽화는 찾아볼 수 없다. 차라리 많은 교과서의 1권에서 ‘벼루’가 기본 단어로 삽화와 함께 제시되어²⁵ 붓과 벼루가 여전히 가장 익숙하고도 대중적인 쓰기의 도구였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그림 43>과 같이 연적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삽화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책상 위에는 삽화가 포함된 페이지가 펼쳐진 책, 벼루, 붓, 붓통 등이 갖춰져 있고, 형으로 보이는 이가 동생에게 연적에 물을 담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그림 43.

초등소학(1906)5-15 硯滴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속 삽화의 실상을 살펴 교과서 삽화의 기능을 분석하고 삽화를 통해 드러나는 근대 초기 국어교육의 모습을 추출하였다.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16종 중 삽화가 수록된 교과서는 10종이다. 국어 교과서에서는 그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표출하는 삽화를 제시하거나 삽화 관련 이야기를 단원의 본문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글과 삽화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치를 담아내고 있다.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속 삽화는 단원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 사물과 장면 등으로 시각적으로 재현하거나 단원 본문의 내용에서 사라진 채 문면 아래에 감춰진 가치를 이미지 텍스트로 육화함으로써 학습자에게 근대적 시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어서 국어 교과서 삽화는 근대계몽기의 당대 사회를 반영하는 풍속도로 기능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삽화를 통해 드러나는 근대 초기 국어교육의 모습을 읽기 교육과 쓰기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5 <국어독본>(1907) 1권 4쪽, <신찬초등소학>(1909) 1권 25쪽, <초등소학>(보성관, 연도 미상) 1권 7쪽, <몽학필독>(연도 미상) 1권 20쪽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세의 독서 관습과 근대에 새롭게 도입된 독서 환경이 뒤섞인 방에서, 길에서, 교실 안에서, 교실 밖에서, 눈으로, 귀로 독서하는 다양한 독서 삽화가 제시되었던바, 이러한 독서 관련 삽화를 통해 독서 태도 교육이 강조되었던 사정을 읽어낼 수 있다.

쓰기 교육 관련 삽화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지만, 근대식 필기구보다는 전통의 필기구인 붓, 벼루, 연적 등의 사용법이나 초학자의 습자와 고학년의 작문 모습을 형상화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 본 논문은 2015.11.02. 투고되었으며, 2015.11.02. 심사가 시작되어 2015.12.0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1. 자료

李滉, <聖學十圖>(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柳根, <東國新續三綱行實圖>(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丁若鏞, <圖說>, 《茶山詩文集》 卷10(고전번역원).

學部 編輯局(1895), 『國民小學讀本』.

學部 編輯局(1895), 『小學讀本』.

學部 編輯局(1896), 『新訂尋常小學』 1-3卷.

大韓民國敎育會藏板(1906), 『初等小學』 1-8卷.

徽文義塾 編輯部(1906), 『高等小學讀本』 1-2卷.

學部 編纂(1907), 『普通學校 學徒用 國語讀本』 1-8卷.

玄采(1907), 『幼年必讀』 1-4卷.

李源兢(1908), 『初等女學讀本』.

俞吉潸(1908), 『勞動夜學讀本』 1卷.

鄭崙秀(1909), 『樵牧必知』 上下.

張志淵(1908), 『녀즈독본』 上下.

姜華錫(1908), 『婦幼獨習』 上下.

鄭寅琥(1908), 『最新初等小學』 1-4卷.

玄采(1909), 『新纂初等小學』 1-6卷.

普成館(연도 미상), 『初等小學』 1卷.

崔在學(연도 미상), 『蒙學必讀』 1卷.

<보통학교 시행령>(1906)(박지태 편저(1999), 『대한제국기 정책사 자료집 IV-교육』, 선인문화사).

2. 논문 및 단행본

구자황(2013), 「근대계몽기 교과서의 생산과 흐름」, 『한민족어문학』 64, 한민족어문학회, 501-538.

김병수(2014),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의 삽화 개발 과정 연구」, 『독서연구』 31, 한국독서학회, 195-220.

박인옥(2010), 「중학교 사회1 교과서 삽화의 기능 분석」, 『한국사지리학회지』

20(2), 한국사건지리학회, 49-62.

박준용(2014), 「검정 국어 교과서 삽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글과의 관계에 따른 삽화의 의미 구성적 기능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44, 한국어교육학회, 401-430.

신수경(2009), 「일제강점기 지리 교과서 삽화 연구」, 『미술사논단』 29, 한국미술연구소, 249-272.

조희숙(1997),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성역할의 분석: 해방 이후에서 현재까지」, 『유아교육논총』 7(1), 부산유아교육학회, 163-185.

조희정(2012), 「근대계몽기 학교 교육 내 문학교육의 특징」, 『문학교육학』 39, 한국문학교육학회, 79-114.

조희정(2014), 「근대계몽기 국어교육 내 언어문화교육의 양상」, 『국어교육』 147, 한국어교육학회, 169-203.

홍선표(2002), 「한국 개화기의 삽화 연구—초등 교과서를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15, 한국미술연구소, 257-293.

홍선표 외(2003), 『17·18세기 조선의 외국서적 수용과 독서실태』, 해안.

홍선표(2005), 「근대적 일상과 풍속의 정조—한국 개화기 인쇄미술과 신문물 이미지」, 『미술사논단』 21, 한국미술연구소, 253-279.

홍선표(2009), 『한국근대미술사—갑오개혁에서 해방 시기까지』, (주)공사·시공아트.

3. 기타

삽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 2015년 12월 7일 검색, 사이트 주소: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밑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 2015년 6월 17일 검색, 사이트 주소: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제책. 한국학 중앙 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5년 10월 30일 검색, 사이트 주소: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51483>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삽화 연구

조희정

본 논문에서는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속 삽화의 실상을 살펴 교과서 삽화의 기능을 분석하고 삽화를 통해 드러나는 근대 초기 국어교육의 모습을 추출하였다.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16종 중 삽화가 수록된 교과서는 10종이다.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의 삽화는 단위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 사물과 장면 등으로 시각적으로 재현하거나 단위 본문의 내용에서 사라진 채 문면 아래에 감춰진 가치를 이미지 텍스트로 육화함으로써 학습자에게 근대적 시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국어 교과서 삽화는 근대계몽기의 당대 사회를 반영하는 풍속도로 기능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삽화를 통해 드러나는 근대 초기 국어교육의 모습을 읽기 교육과 쓰기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중세의 독서 관습과 근대에 새롭게 도입된 독서 환경이 혼합된 상황에서 방에서, 길거리에서, 교실 안에서, 교실 밖에서, 눈으로, 귀로 책을 읽는 다양한 독서 삽화가 제시되었던바, 이러한 독서 관련 삽화를 통해 독서 태도 교육이 강조되었던 사정을 읽어낼 수 있다.

쓰기 교육 관련 삽화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지만, 근대식 필기구보다는 전통의 필기구인 붓, 벼루, 연적 등의 사용법이나 초학자의 습자와 고학년의 작문 모습을 형상화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핵심어 국어교육,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삽화

ABSTRACT

The Study on Illustrations in Korean Textbooks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Cho, Hee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llustrations in Korean textbooks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From the viewpoint of relations between a text and an illustration in Korean textbook, there are functions of illustrations, which visualize contents in the text, which supplement absent information in the text and which get into an ideology of gender role stereotyping.

Illustrations show various reading situation that a student reads aloud a book in a room, a boy reads a book with a horse on a road, many students pay attention to reading books in a classroom and a herdboys listens lessons carefully outside of a classroom. They emphasize importance of reading attitude education and learning by reading a book on early Korean education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KEYWORDS Korean Education,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Korean Textbook, An Illustration